

허무주의를 통한 시인의 자기반성 좌절과 기다림의 실연시편 묶어내

— 시집 「失戀歌」 펴낸 김재진씨

이 책 그 사람

방송국 프로듀서 생활 10년째인 30대 중반의 시인이 '실연'을 얘기하고

허무주의자임을 자처한다는 사실에, 선불리 그의 삶의 '건강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한치 앞의 내일도 피곤한 생활인들에게는 그리 새로울 것이 없을 것이며, 더구나 그 '생활'에 덧붙여 항상 시를 써야 한다는 의무감에 시달리는 시인의 이중고를 생각한다면, 그에게서는 패배주의보다는 오히려 솔직함을 읽어낼 수 있다.

최근 시집 「失戀歌」(실천문학사)를 출간한 김재진씨(35, 불교방송국 PD)는 우선, 이번에 발표한 작품들은 자신의 실제 경험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가 바라는 것은 시인의 개인적인 실연을 사회적 실연으로 보편화시켜 읽어낼 수 있는 독자의 독법이다.

평론가 김명인씨는 그의 시들에 대해 "자신의 문제라는 프리즘을 통해 역사와 세계를 보고자" 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고 평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그는, 이들 실연시를 읽고 독자들이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한다.

"어느 작가나 마찬가지겠지만, 제 자신 이번 시집에 대해 불만스럽고 특히 사회적 의미로 확산되는 시적 형상화에 실패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평범한 의미에서의 사랑에 대한 좌절과 기다림의 시편으로 읽혀지면서 그 감정을 공유할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시집이 비평가의 초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오히려 듣는 사람을 당혹케 하는 그의 말은 자신에 대한 냉정한 평가이자 문학 혹은 문단에 대한 나름의 비판을 담고 있다.

암호 같은 시, 시인만이 독자가 될 수 있는 시, 그리고 복잡한 문단의 분과주의가 그를 '문청'의 꿈에서 깨어나게 했고 삶과의 연장선상에서의 문학의 역할에 대한 회의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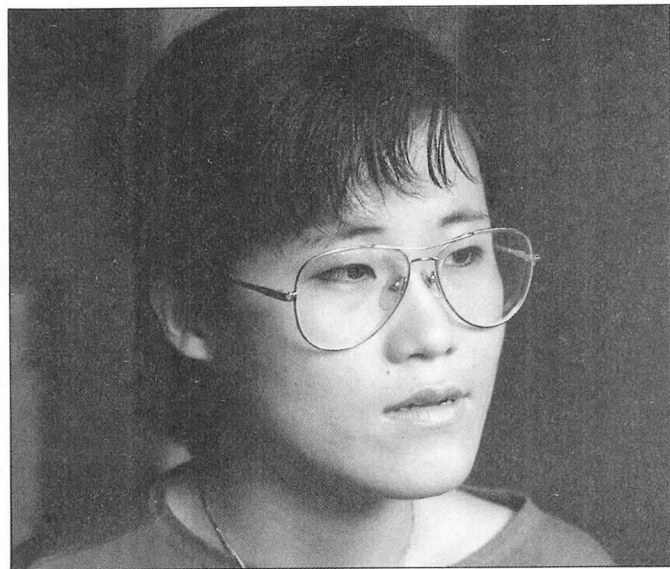
"차라리 허무주의가 삶의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는 자세가 아닐까 합니다. 그 때문에 無爲의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시각에서 평범한 생활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그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앞으로 '통속시'와는 구별되는 '대중시'를 쓰고자 한다. 시인과 독자(대중)와의 교감이 가능해지는 지평으로서의 허무주의는 그러므로 역설적인 적극성을 띠게 된다.

KBS 9기로 입사, 현재 몸담고 있는 곳의 교양부 차장으로 있기까지의 방송계 생활에 대해서도 그는 "그리 건질 것이 없는 실패작인 것 같다"고 한다. 다만 이 일에서의 '창조적인 부분'만 자신에게 맞았다고.

분명히 오랜 시간을 견뎌야 했었을 그의 습작기, 등단과정, 그 후의 문학적 변모 등에 대해서도 그는 "그저 방향을 줬다"고만 말한다.

— 정소연 기자



'映畫의 榮華時代'에 대한 짙은 향수 '편식' 벗어난 다양한 영화메뉴 제시해

— 「나를 움직인 이 한편의 영화」 엮은 박숙희씨

이 책 그 사람

지금은 고물상이나 가봐야 찾을 수 있는 흑백텔레비전을 만화방 한켠에 마련된 골방에서

'단체관람'하면서 자란 60년대產들에게는, 그래도 자신의 가슴에 깊이 새겨진 '총천연색' 명화 하나쯤은 의례히 있기 마련이다.

더욱이, 이들은 앞세대들이 탈춤이나 남사당패의 공연에서 찾았을 신명을 영화에서 찾아내고, 영화관람이 하나의 축제가 되곤 했던 '映畫의 榮華時代'를 향유한 마지막 세대이기도 하다.

최근 「나를 움직인 이 한편의 영화」(도서출판 정민)를 엮어낸 박숙희씨(한양대 영화과 석사과정·28)는 바로 그러한 세대를 대표하는 '영화광'이다.

"이번에 엮은 책은 33명에 이르는 영화인, 문인들이 충격적으로 본 영화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펴려한 글들을 한데 모은 것입니다. 그간 헐리우드나 홍콩영화에만 익숙했던 일반인들에게는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올 정도로 다양한 영화가 재미있고, 때론 감동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출판계에 관행으로 자리잡은, 이미 다른 매체에 발표된 원고를 '재탕'하는 수법과는 달리 전체 원고가 편집의도에 맞춰 새롭게 엮여졌음을 강조하는 박씨는, 문인들에 대한 청탁은 소설가 김남일씨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그 가운데 박씨가 주로 청탁한 영화인들은 "그들이 자신의 발길을 충무로로 돌릴 수밖에 없도록 만든, 따라서 '나를 충무로로 움직이게 만든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진솔하게 밝혀져 있어 읽는 재미를 한층

높여주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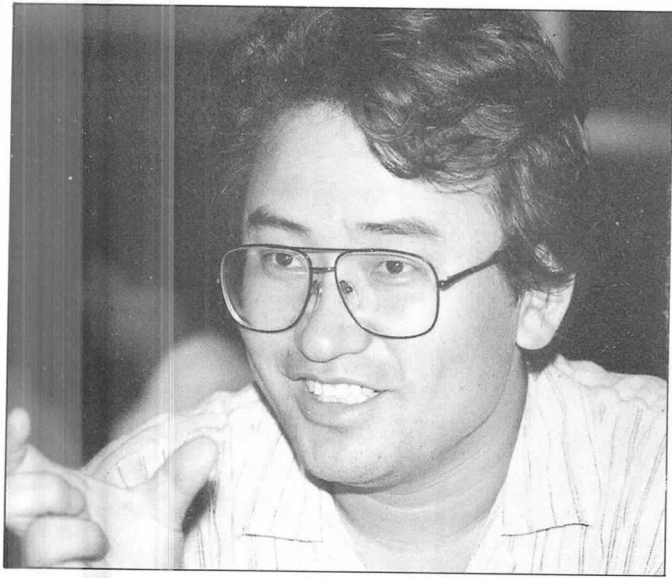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던 박씨가 '영화의 늪'에 빠지게 된 것은 대학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는 「영화론」을 수업하면서부터. 물론, 사춘기 시절부터 이미 극장가순례는 시작되었고, 대부분의 영화광들이 그러하듯 불란서문화원에서 '영화읽기'에 뉘를 빼앗겼던 그가 이 시간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유혹을 받았다고.

사회진출도 영화전문 잡지나 비디오 기획실 등 영화와 가까와질 수 있는 곳만을 택했던 박씨가 "다분히 소비적인 직장생활"을 포기하고 학업에의 길을 선택한 것은 동경영화제를 관람하면서라고 한다. 세계적인 규모의 영화제를 개최할 수 있는 일본의 문화적 역량에 감탄하면서 척박한 국내 영화현실에 도전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

우리 영화계의 가장 큰 문제점을 "프로의식의 부족"이라고 지적하는 박씨는 영화관련 잡지에 짙막한 글들을 쓰기 시작하면서 조심스럽게 '영화평론가'라는 꼬리표가 붙고 있지만, 본인은 본격적인 영화평론을 쓰기 위한 도약기로서 학업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그러나 영화관 이곳, 저곳에서는 이론부재의 우리 영화계에 무섭게 도전하는 새 세대의 한 사람으로 손꼽히고 있는, 그 활약이 기대되는 '유망주'.

그간 섭렵한 수많은 작품 가운데 그 자신을 움직인 영화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카스퍼하우저의 수수께끼'라고 대답하는 박씨의 "그러면..."이라는 질문에는 알란 파카의 'The wall'이라고 답함으로 한 시대를 사는 같은 세대의 공통된 감수성을 확인했다.

— 이권우 기자



중국고전 중심의 한문교육 비판 일선교사들이 엮은 한국한문선집

—「함께 읽는 우리 한문」 펴낸 최성수씨

이 책 그 사람

“나는 한글전용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동료교사 4명과 함께 엮은 「함께 읽는 우리 한문」(연구사)을

출간한 최성수씨(전 대신고 교사·32세)가 그의 체구만큼이나 당당한 웃음을 지어보이며 내뱉은 첫마디다.

한글전용론자가 만든 한문책. 언뜻 생각하기에 어딘가 아귀가 맞지 않아보이는 얘기다. 한때 교과과정에서 한문과목을 빼버리기까지 했던 한문폐지론과 같은 선상의 국수주의의 극단쯤으로 그의 한글전용론을 몰아붙여 놓고 보면 다시 한문의 중요성을 거론하면서 책까지 만든 행위는 그것과 정반대의 극단이나 놓일 법한 것이라 여겨지는 까닭에서이다. 그러나 이 책의 머리말을 읽으면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옹졸하고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금방 깨닫게 된다.

“오늘날처럼 일상언어가 한글의 전용화로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언어생활의 필요성 때문에 한문을 익히던 시기는 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우리의 한문교육은 기초적인 문자습득에 치중, 중국고전에 상당히 의존해 있는 실정이고 이는 곧 우리나라 한문학에 대한 경시와 몰이해를 낳았다”는 반성이 바로 그것.

한글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언어라면 우리의 한문학은 삼국시대부터 비롯된 우리 민족의 삶과 철학이 문자로 정착된 기록언어였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최성수, 김용수(대신고), 송병렬(경신고), 유경순(전 창동중), 홍석미(전 광장중) 등 5명의

전·현직 교사들이 한문교육의 개선을 위해 ‘한문교사모임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그 첫 작업으로 「함께 읽는……」을 출간하기로 한 것도 한문=한자, 혹은 중국 고전이라는 일반적인 통념을 부수고 우리 한문학에 대한 이해를 대중화시키는 것이야말로 한문교육의 제도수정을 위한 기초작업이라는 인식에서였다.

‘한국한문학선집’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한문학 작품을 선정, 번역하여 해설과 함께 수록하고 있는 이 책을 만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무래도 작품선정과 정확한 번역. “사대부 중심의 유흥문학으로 알고 있는 일면적인 인식을 재고하고 우리 민족의 문화, 역사, 철학이 담겨 있는 한문학의 총체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최성수씨는 말하는데 이러한 편집의도는 ‘옛사람의 슬기와 웃음’, ‘사랑의 세상을 위하여’, ‘사회와 인간’, ‘민중의 고난과 갈등’ 등의 소제목에서도 쉽게 드러난다. 선정된 작품을 분담하여 번역하고 다시 공동검토를 거쳐 원고를 완성한 것이 금년 5월, 꼬박 반년이 걸린 셈이다. 그동안 쏟은 노력이 헛되지 않아 책이 출간된 후 한문학에 관심이 있던 일반인이며, 국어, 역사과목을 가르키는 교사들에게서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 또 그동안 준비위원회 형태로 있던 교사모임이 창립대회를 치루고 ‘한문교육을 위한 교사모임’이라는 정식명칭으로 발족되어 보다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이 책의 출간 즈음 최성수씨가 해직된 것. 개학날 그는 교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 박남정 기자



오랜 상담경험 바탕 따끔한 조언담아 자녀의 ‘그릇크기’에 맞는 지도를

—「훌륭한 자녀 현명한 부모」 펴낸 이유아씨

이 책 그 사람

근자에 들어 전기대학 입시경쟁률이 해마다 ‘사상최고’라는, 결코 달갑잖은 기록갱신을 계속하고 있다. 5명이

시험치면 그중 4명이 패배의 좌절감을 맛보아야 하는 비정상적 치열함과, 학벌과 직업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릇된 가치기준 속에서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과 부모는 과연 어떤 태도와 생각으로 이 난관을 헤쳐가야 할까.

오랫동안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교육과 부모의 역할에 대해 상담해왔던 교육학자 이유아씨(51)가 최근 중·고등학생 학부모들에게 주는 「훌륭한 자녀 현명한 부모」(한국교육연구원)를 펴내 좋은대학 좋은학과만을 향해 자녀들을 댕달하는 학부모들에게 따끔하게 조언하고 있다.

“자녀를 훌륭히 키우고 싶으면 부모가 먼저 현명해져야 해요. 현명한 부모란, 자기 아이의 그릇크기와 모양, 그리고 쓰임새를 잘 아는 이로 그에 맞는 능력과 자신감을 키워주는 부모지요.”

한국교육연구원의 원장으로 각종 적성·심리검사 및 교육상담에 응하고 있는 그는,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모들이 ‘자식은 내것이니까 내마음대로 해도 무관하다’고 생각하거나 부모 자신이 생각해서 좋다고 느껴지면, 가령 직업 등, 자식 역시 좋아하리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들려준다.

따라서 이 책은, 부모의 의지대로 의대에 들어간 아들이 시험공포증에 시달리다 결국 도중하차한 예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들을 통해 부모

자신들의 모습을 비춰보고 반성하게 하는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대학에 진학하기엔 조금 부족한 자녀라면 자신의 능력에 맞는 길을 일찍 선택해주는 일이 옳아요.”

이 책을 차근히 살피다 보면, 우리네 부모들의 교육태도가 얼마나 자녀를 소유물화하고 독립된 개체로 인정하지 않으려는지, 또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습관처럼 생각과 행동을 하는지 확인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같은 자녀교육이론을 가진 그가 자기 자녀에게는 과연 얼마나 실천하고 있을까. 먼저 그는, 살짝 웃더니 “솔직히 말해, 대학강단에서 교육이론을 강의하거나 상담할 때와 똑같이 이성적일 수는 없더군요. 사실 욕심이 조금은 나더라구요” 하고 답한다.

그러나 그건 잠깐뿐. 3남매의 적성과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 진로를 선택하게 했고, 그점은 자녀들이 각자의 일을 매우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는 데서 확인된다고.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어서 막내딸의 경우, 국민학교때 산수과목에 흥미가 없고 학업성적도 오빠들에 비해 나빠 자신감을 잃자, 체계적인 독서지도로 문과적 자질을 키워주었다고 한다. 이 책 18장 〈독서습관과 장학생〉편이 바로 딸아이 이야기.

이씨가 학부모들에게 특히 신경을 쓰라고 조언하는 점은 바로 자녀의 문과, 이과, 예체능 계의 적성을 알아내는 일. 이는 배우자선택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라고 거듭 강조한다.

— 정혜옥 기자